

## 이번 호의 주요 내용: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  
제 1 페이지

학사일정과 공지사항  
제 2 페이지

과의활동  
제 3 페이지

초등부 소식  
중고등부 소식  
제 4 페이지

중고등부 여행  
제 5 페이지

6학년 동물원 견학  
제 6 페이지

3학년 시내 중앙광장 견학  
제 8 페이지

BISC WROCLAW 주변  
제 9 페이지

## 제 7 호 10 월 21 일 (금)

학부모님과 우리 웹사이트를 찾아주신 분들께,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평상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이 아이들은 수 천 걸음을 힘겹게 오르내렸지만 아주 멋진 곳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이전에 섭취하였던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 자신도 군사(軍史)를 전공한 사람으로 은산(銀山; góry śrebrne 폴란드 지방의 지명)의 요새도 보고 전장(前裝) 대포 발사를 재연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꼭 경험해야 할 일로 정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사진 촬영 당일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고 단체 사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원수가 늘어나서 사진사가 모두를 한 장면에 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말입니다. 개인 사진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중간 방학 이후 Marlena 에게 말씀 주시면,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진사의 주소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작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 할로윈 행사 계획 마무리
- 하우스 별 학생 명단 작성
- 소방 대피 훈련
- 학부모 상담회 시간 약속 작성 중
- 지역 대민 담당관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한 경찰 측과의 첫 접촉

# 뉴스레터

## WEEKLY SCHOOL INFORMATION, EVENTS AND NEWS



또한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약천후 시 체육 활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학급의 규모와 ESL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제한된 공간 내에서 임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해성 선생님과 Hiroko 선생님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Hiroko 선생님이 일본 문화 센터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에 동의를 주셨으며, 그래서 아주 넓은 공간을 교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rcin 선생님이 약천후 시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두 개의 체육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만간 몇 개의 교실을 재편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사려 깊은 결정을 내려 주신 Hiroko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건물의 내부 정리가 끝나는 대로 Hiroko 선생님이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공간을 찾을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하우스 로고 작품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문 (11학년) - 전체 하우스 로고
- Alexander (6학년) - 액자 그림 (Phoenix)
- Charlotte (6학년) - 액자 그림 (Cygnus)
- 채은 (6학년) - 액자 그림 (Lupus).
- 서영 (6학년) - 액자 그림 (Pegasus).
- Chloe (7학년) - 디자인 추천작
- 소원 (Y7학년) - 디자인 추천작

이 학생들에게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인정으로 머지않아 조희 시간에 상이 수여될 것입니다. 로고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들 다 잘했습니다!

제가 방과 후의 안전에 관해 당부 드리기에 전에 학부모님께서도 수업이 끝난 후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들은 각종 모임과 수업 준비, 과외활동 등에 임하시는 관계로 아이들의 안전을 두루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교장  
Wayne Billington  
배상



### CONTACT DETAIL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Wrocław  
 al. Akacjowa 10-12, 53-134 Wrocław, Poland  
 School office tel: +48 71 796 68 61 fax: +48 71 796 68 62  
 email: wroclaw@bisc.krakow.pl , head@bisc.wroclaw.pl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taff Morning Briefing 8.15a.m. dining room	18 Photographer at school  Art Competition Deadline  Round Table (Primary) 8.30a.m.	19 ESL for parents (2.40p.m.-3.25p.m.)	20 Secondary School Assembly 8.35 a.m.  Foundation Botanical Garden Trip	21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22	23
24 Staff Morning Briefing 8.15a.m. dining room  Full Staff Meeting 3.40p.m.	25 Parent Teacher Evening 4.00p.m. – 6.00p.m.  Round Table (Secondary) 8.30a.m.	26 ESL for parents (2.40p.m.-3.25p.m.)  Parent Teacher Evening 4.00p.m. – 6.00p.m.  PTA Deadline for Bazaar Items	27 Whole School Assembly 8.35 a.m.  Foundation Bake a Cake Day	28 ESL for parents (8.35a.m.-9.20a.m.)  Halloween Party	29	30
31 Half Term Break	1 Half Term Break	2 Half Term Break	3 Half Term Break	4 Half Term Break	5	6

공지사항



학교 주변에 주차하실 때에는 주의하세요.  
가정집의 출입구, 또는 차도를 막으면 안됩니다.

**횡단 보도에도  
주차하지 마세요!**

- 한국인 코디네이터 이해성 선생님의 상담 가능 시간:  
월요일 8:30 – 12:05  
화요일 8:30 – 10:10 및 1:00 – 3:20  
수요일 8:30 – 12:05  
목요일 8:30 – 12:05  
금요일 8:30 – 10:10 및 12:20 – 1:50

- 우라 학교 교복이 분실되었습니다. Alvaro 라는 이름이 적힌 짙은 감색 반바지, 폴로 셔츠와 체육복 셔츠, 폴로 셔츠입니다. 혹시 맥에서 찾으시면 Marlena 에게 알려 주세요.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일본인 코디네이터 Nagai 선생님의 상담 가능 시간 (변동 내용):  
월요일: 11:20 – 3:25  
화요일: 8:30 – 3:25  
수요일: 10:30 – 3:25  
목요일: 11:20 – 3:25  
금요일: 9:25 – 3:00

- 월요일 11:00-1:00 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유치부 Bake a Cake Day 일정이 10 월 28 일 (금)에서 27 일 (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CA	TEACHER	AGE GROUP	WHERE	WHEN
Homework Club	Christina Andrzejewski	Whole primary	Yr 3 room	Wednesday 3:30
Homework Club	Marta Mironiuk	Whole primary	Yr 1 room (sparrows)	Monday 3:30
Sewing Club	Anna Witańska	Yr 2-Yr 6	Yr 4 room	Wednesday 3:30
Newspaper Club	Kristina Galuska	Yr 3 – Yr 6	ESL room (opposite the gym)	Monday 3:30
ESL For Parents	Iwona Sokołowska	parents	ESL room in the small villa	Wednesday, period 7 Friday, period 1
Origami Club	Iza Łuczowska	Yr 1- Yr 6	Foundation room	Tuesday 3:30
Circle Art Club	Karolina Traut Karpińska	F - Yr 2	Year 1 room (eagles)	Tuesday 1:30
Paper Art	Diana Tonge	Yr 1- Yr 6	Year 2 room	Thursday 3:30
Card Making Club	Jennifer Jones	Yr 2- Yr 6	Year 5 room	Wednesday 3:30
Free Verse Poetry	Joanna Schier	Yr 3- Yr 6	Year 6 room	Monday 3:30
Art Club	Hye Seung Lee	Yr 3- Yr 6	Art room	Thursday 3:30
Football Club	Marcin Kwasiuk Alex Sitkowiecki	Yr 1 – Yr 6	Football pitch	Monday 4:00 – 5:15
Swimming	Marcin Kwasiuk	Yr 1 – Yr 3	ul. Trwała 17-19	Tuesday 5:20-6:05
Swimming	Marcin Kwasiuk	Yr 4 upwards	ul. Trwała 17-19	Friday 5:20-6:05
Guitar Club	Maciek Pośluszny	Yr 3 – Yr 6 Y7 upwards	Music room	Wednesday 3:30 Friday 12.10
School Band	Maciek Pośluszny	Y7 upwards	Music room	Tuesday 3:30
School Orchestra	Maciek Pośluszny	Y5 upwards	Music room	Thursday 3:30
Drawing Club	Rebecca Grocott	Secondary	Year 11 room	Tuesday 12.10
Japanese for beginners	Hiroko Nagai	Secondary	Japanese room	Monday 12.10 Wednesday 12.10
Japanese for advanced students	Hiroko Nagai	Secondary	Japanese room	Tuesday 12.10 Friday 12.10
Creative writing Club	Joanna Schier	Y2 upwards	Year 6 room	Monday 3.30



중간 방학까지 2 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지요?  
 날씨가 점점 차가워짐에 따라 힘든 계절을 대비하여 체육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건물에 임시 ESL 교실이 놓여지면 Marcin 선생님은 다시 체육실을 얻을 것입니다.

방과 후에 자녀들의 안전은 학부모님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나무에 올라갔던 아이와 아무도 없는 건물 안에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또 다시 바쁜 한 주였습니다. 1 학년 참새반은 한 친구의 몸을 측정하여 인체의 평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2 학년은 애완동물 돌보기와 집 안의 동식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또한 할로윈과 관련한 미술 작품과 만들기를 하면서 물건들의 '정신'에 관하여 알아보기도 하였지요. 3 학년은 DT(design & Technology) 활동으로 베게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몇 주 후에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4 학년은 평면 도형의 주변 길이와 넓이 계산을 배우면서 기하학을 공부 계속하였습니다. 6 학년은 다양한 기후권에 따른 거주환경에 관해 공부하고 동물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초등부 조회를 가졌습니다. 1 학년 독수리반은 오감(五感)에 관해 발표하고 춤을 선보였어요. 다음의 학생들이 스타 인증을 받았습니다:

- 유치부 - Nico
- 1 학년 독수리반 - Magda
- 1 학년 참새반 - Aaron
- 2 학년 - Manuel
- 3 학년 - Leo
- 4 학년 - Luna
- 5 학년 - Iris
- 6 학년 - Jack

특별상은 소방 대피 훈련 때 재치 있는 행동을 보인 4 학년의 Mati 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해요!

할로윈 의상 쇼핑을 즐겨보세요. ^.^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Anna Witańska  
 Head of Primary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께,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Ghost Town'이 아닌 'The Clash'라는 유명 밴드의 'London Calling'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제가 과거의 기억을 기쁘게 회상할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모두 수록된 '특별' CD를 주신 O'Toole 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 앞 부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행을 잘 다녀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보았던 풍광과, 노래, 경치들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배움에 더욱 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 학생들에게 평소 일반적인 학습 이외에도 멋진 문화 체험이 되었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이번 여행에 관한 총평은 주말을 앞두고서 긴장을 풀고 여행을 회상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주의 조회에서는 사람들의 행위, 경험, 그리고 지혜 간의 연결 관계와 그것이 삶과 배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관해 토의하였습니다. 아이슈타인이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라고 말하였고 '훌륭한 결정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종종 잘못된 결정에서 나온다'(Brown) 라는 것처럼 최고의 성취는 '다른 이들의 실수하는 반면에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고쳐 나간다'(Syrrus)는 것에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사상은 새로이 발표된 중고등부 행동 정책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중간 방학이 지난 이후 우리 학교 주주들께도 공식적으로 공지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관한 대응책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명백하게 밝히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즉, 효과적인 배움과 학습 그리고

학생들이 소중하고 존중 받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공동체의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입니다.

이번 조회는 하우스 로고 공모전 결과와 Justyna 선생님의 수학 동상 인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은 수상자들,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Wishing you all a wonderful weekend,

Wayne Billington  
 Head of Secondary

## 중고등부 여행

지난 주에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은 ‘책상 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여행은 역사, 지리, ‘개인 건강 및 사회 교육’, 그리고 영어 과목의 일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총 나흘간 진행되었고요, 10 월 12 일에 학교를 떠나 15 일에 돌아왔습니다.

첫날에는 여러 번 멈추어 섰습니다. 멋진 Książ 성과 비밀 병커에 갔어요. 우리는 Nowa Ruda 와 Klodzko 도시를 걸어 다니며 구경하였고 우리가 머무를 호텔에 도착하였지요. ‘폴로네즈 호텔’이라는 곳이었어요. 꽤 괜찮은 시설에 음식도 좋았어요. 저녁 시간에는 디스코나 영화 등을 즐겼습니다.

목요일에는 세계 3 대 해골 교회 중 하나가 있는 체코의 중세 도시 Kutna Hora 에 갔어요. 이 교회에는 무려 20,000 명의 사람 뼈로 채워져 있었답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람의 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울하였지요. 이날 나머지 일정은 모두 체코에서 보냈습니다. 폴란드 국경을 넘어 돌아와서는 Duszniki Zdrój 라는 작은 도시를 걸어서 둘러보았는데 정말 멋졌고요 그곳의 중앙광장도 브로츠와프와 비슷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곳의 몇몇 성도 가보았답니다.

제 견해로 이번 여행에서 최고의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이날 우리는 ‘책상 산’을 탐방하였지요. 그곳에 오르기 위해서 700 걸음을 해야 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치가 정말 끝내줬거든요! 멋진 광경을 보았답니다. 수천 년 전에 이곳이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리고 나선, ‘체코슬로바키아 마지노선’이었던 병커로 갔는데, 정말로 크고, 어둡고, 칙울하였어요. 오후에는 호텔로 돌아와서 여러 활동을 하였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여행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도 여전히 재미있었어요. Złoty Stok 의 금광을 보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산중 요새인 Srebrna Góra 를 탐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이드가 엽총과 대포 사격 시범을 보여주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름다운 공원과, 역사 및 고고학적 보물이 가득한 멋진 박물관과 전원 도시들을 둘러보고 나서는, 아쉽게도 브로츠와프로 돌아와야 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넓히는 좀처럼 드문 기회였으며, 우리는 이 여행을 즐기며 많은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이 멋진 여행을 조직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ne-Sophie Neyra  
Year 9



## 6학년 동물원 견학

우리의 동물원 견학은 10월 12일 브로츠와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이 다 갔고요 7학년의 Marten도 추가로 함께 하였지요.

이날 하루의 시작은 보통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소지품을 모두 챙기고서 목적지로 향했어요. 길을 건너 전차 정류장에도 도착하자 전차가 왔습니다. 제 시간에 맞춰 탔지요. 전차는 2번이었는데, 동물원으로 한번에 갔어요. 동물원까지는 전차로 40분, 걸어서 10분 걸렸어요.

동물원에 도착해서 구경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동물 구경을 했지요. 애완동물 동물원도 갔고 기린, 얼룩말, 곰, 원숭이 등의 동물도 보았어요. 앉기 좋은 자리를 찾아 간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선 좀 더 구경했어요. 하이에나, 가젤, 영양, 가장 멋진 최고의 사자와 더 많은 동물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위해 수족관으로도 향하였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은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단어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거북이 두마리와 타란툴라(독거미), 물고기 여러 마리, 원숭이 두마리, 사슴들 그런 것하고 케아 앵무새도요.

저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서 생각했습니다. 또한 야생에서는 멸종된 동물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새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그곳에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사자를 좋아했어요. 트럭 위로 올라가면 사자를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사자는 창문으로 와서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두들 비명을 지르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것이 저의 동물원 이야기 전부이에요. 너무 재미있어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답니다.

### Charlotte Kelham

그 여행은 쌀쌀했던 10월의 수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Shier 선생님이 브로츠와프의 재미있는 명물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버스와 경주하느라 바빴어요. 30분이 지나자 거의 다 왔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백년홍을 벌써 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지요.

드디어 전차에서 내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자, 하마, 기린 등과 같은 동물들을 본다가에 신이 났어요. 하지만 여러 문들을 지나 제가 이제껏 상상도 못했던 동물을 보러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동물원 정문을 지나자마자 저는 기린의 머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이제 더 재미있는 동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은 애완동물 동물원을 향해 이동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미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까만 눈을 지닌 갈색 토끼가 최고였어요. 그리고선 말들을 보러 갔는데 한 마리도 밖으로 안 나왔어요. 우습게 생긴 당나귀만 빼고요. 그 다음엔 라마를 보러 갔는데 그건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냥 풀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의 동물로 갔는데 이번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스라소니였어요. 멸종 위기종이지요. 우리가 보러 갔을 때 스라소니는 뭔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스라소니 가족이었는데 한 놈이 나를 한번 보더니 딴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선 계속해서 동물원을 가로질러 들소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진짜 컷어요! 그 다음엔 곰과 원숭이가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 애네들은 진짜 재미있었고, 특히 원숭이는 짱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동물을 보러 출발하니 원숭이 한 마리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자를 보러 갔어요. 사자를 보기 위해선 차에 타서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벌떡 일어서더니 차로 다가와 앞발로 유리창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진짜 끝내줬습니다. 그 다음엔 캥거루를 보러 갔는데 게네들도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선 정말 재미있는 동물을 보러 갔습니다. 그건 케아 앵무새라는 동물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2:30,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는 재빨리 동물원 밖으로 나와 전차를 잡아 탔습니다. 전차에 오르고서는 동물원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 Nicolas Gamez Pineda





오늘 2011년 10월 12일 6학년 모두와 7학년 학생 한 명은 동물원에 갔습니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게요. 동물원에서 우리는 사자, 호랑이, 사슴, 예우, 원숭이, 곰, 들소, 코끼리, 그리고 여러 많은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사자고요, 특히 게네들이 가까이 다가와 사파리 트럭 창문을 쳤을 때였지요. 원숭이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를 따라 움직였거든요. 또 밝은 오렌지색 날개를 가진 케아앵무새 아래에서 그것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한 코끼리 쇼도 좋았어요. 동물들의 멸종 정도에 관해서도 배웠는데 거북이들이 가장 위험에 처했다고 하네요. 동물원에 그러한 동물들은 멸종 위기로 인한 '관심필요'(LC: Least Concern)에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날은 매우 성공적인 하루였어요.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을 많이 즐겼습니다. Schier 선생님, Anna 선생님 고맙습니다.

**Jack Wilson**

2011년 10월 12일 우리는 오늘 여행을 갔습니다. 브로츠와프 동물원으로 갔어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릴게요. 사자를 보러 갔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것인데 뒤로부터 탔어요. 저는 운전대가 있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선 차창 밖에 앉더니 제 방향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엔 다른 방향으로도 그렇게 움직이더니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 농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 재빠른 동작으로 창문을 확 긁더라니까요. 물론 그 사이엔 우리가 있어서 괜찮았지만 다들 비명을 질렀답니다. 저도 아주 겁났어요. 상환이가 하이-파이브를 하니깐 상환이한테도 무섭게 겁을 줬어요. 저는 사자가 정말 좋았어요. 또한 케아 앵무새도 좋았는데, 그건 아주 똑똑하고 보기에 멋진 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숭이들도 좋았는데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농이 있었습니다. 곰 우리에게 있던 원숭이들도 좋았고요, 그 농들은 우리가 뛰는 모습을 보이면 따라서 움직였어요. 곰은 덩치가 아주 컸고 아마도 매우 강한 것 같았습니다. 케아는 진짜 새가 맞다고 했는데 그 농은 퍼즐을 풀 줄 아는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배웠습니다. 작은 물고기에 관해서도 배웠는데, 작은 물고기가 다 죽는다면 큰 동물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다 같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두 종류의 거북에 관해서도 배웠지요. 하나는 육지에 살고 또 다른 종은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물 속에서 헤엄치며 보낸다고 했어요. 물에서 사는 거북은 목이 아주

길었습니다. 자신의 등껍질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긴 목을 가졌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 거북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인데 사람들이 등껍질을 그릇으로 쓰고 그 고기를 먹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거북(육지 거북)은 짧은 목을 가졌는데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대요. 그 다음엔 찌르레기라는 새를 보았습니다. 이 새는 온몸이 하얗고 조그만한데, 이것도 멸종 위기종이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새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잡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에게 잡히면 바로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새를 또 잡고 또 잡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는 자꾸 죽어나간다고 해요. 다 보고 나서 우리는 전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꽤 피곤했지만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Stan Timmermans**



### 3학년 중앙광장 견학

오늘은 2011년 10월 17일입니다. 햇빛이 창창한 날이에요. 우리 여행의 목적지는 브로츠와프 중앙광장이랍니다. 우리는 전차를 타고 중앙광장으로 갔고 거기까지 가는데 30분 걸렸어요. 전차에서 내려서는 5분간 걸렸죠. 광장 주변을 둘러보고 건물 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먹고 콜라를 마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땅의 난장이 요정이에요. 큰 공을 굴리는 난장이 요정은 재미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전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더웠어요. 오늘 여행은 매우 재미있고 좋았어요. 저는 조금 피곤하기도 했답니다. ^^

**Yun Jin**

날짜: 10월 17일

날씨: 햇빛이 났지만 추움

목적지: 중앙 광장

우리는 전차를 타고 광장으로 갔고 거기 가는데 13분 걸렸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찾아 보았고, 그리고선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보며 여러 재료들을 찾는 것을 즐겼는데, 물건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선 전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Sehoon**

2011년 10월 17일 월요일에 우리는 시내 중앙광장으로 갔습니다. 햇빛이 좋았지만 추운 날씨였어요.

거기까지 전차로 갔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중앙광장에서는 여러 재료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Totos (Tom)과 함께 걸었어요. 피자도 먹었습니다.

Totos와 Ben과 함께 즐겁게 걸어 다녔어요. 재미있었지요.

우리는 피자를 먹고 난 후 전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David**



